

1년 만에 K리그1...광주축구전용구장 최다 관중

홈 개막전 7,357명 입장

2020년 개장 이래 최다

퇴장 악재 서울에 0-2 패



추운 겨울 킥오프 휘슬이 울리기만 기다려온 광주의 축구팬들이 광주축구전용구장을 가득 채웠다.

지난해 K리그2 우승과 함께 K리그1로 복귀하기까지 응원을 아끼지 않았던 광주FC 팬들은 5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3 홈 개막전을 찾아 K리그1에서의 8개월간 여정을 시작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진행된 이날 경기 예매는 경기하루 전인 4일까지 6,400석이 예매됐고, 현장판매를 포함해 이날 7,357명의 관중이 집계됐다. 지난 2020년 7월 문을 연 광주축구전용구장 최다 관중이다. 이전까지 최다 관중은 지난해 10월 경남FC전 5,861명이다.

지난해 우승과 K리그1 복귀, 그리고 지난달 25일 수원 삼성과의 리그 개막전에서 승리한 광주 선수들의 플레이를 '작관' 하려는 관중들로 킥오프 시간이 한참 남은 경기 시작 2시간 전부터 광주축구전용구장 앞은 북적였다.

구단도 경기장 내 푸트백을 입점시켜 관중들이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했고, 상

품샵도 오픈해 다양한 굿즈를 선보였다.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했다. LG스탠바이 미TV, 아이패드 미니, 애플워치, LG시네마빔, 닌텐도, 백화점 상품권 등 푸짐한 경품들을 준비했고 경기장 밖에는 타투 스티커 이벤트와 SNS 직관 인증샷 이벤트, 신장무·정지훈 팬사인회와 치킨 시식회를 열었다.

두현석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을 찾은 광주 팬 박신영씨(27)는 "광주FC의 팬이자 두현석 선수의 팬이다. 작년 2부리그도 마찬가지고 광주가 창단했을 때부터 주말 경기에 자주 왔었다"며 "현장 판매는 사람이 많고 복잡할 것 같아 늘 사전예매를 한다"고 말했다.

함께는 이슬림씨(27)도 "팀이 오랜만에 1부리그로 승격해서 함께 경기장에 오기로 했다"며 "객관적인 전력에서 밀리는 건 사실이지만 공은 둥글다는 말이 있듯이 광주의 조직력으로 FC서울을 이겼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자녀들과 경기장에 찾은 신호이씨(38)는 "광주가 잘해서 승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게됐다. 아이들도 축구를 좋아한다"며 "티켓링크에 나오지 않았던 좌석이 현장판매에서는 남아 있는지 확인하려고 대기 중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기 결과는 아쉬웠다. 광주는 선제골 취소, 퇴장 악재에 0-2 패배라는 고배를 마셨다.

전반은 잘 싸웠다. 황의조와 일류첸코 등 화려한 서울의 공격진도 광주의 골문을 뚫지 못했다.



5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3 광주FC와 FC서울의 경기에서 관중석을 가득 채운 광주FC 팬들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이날 관중은 7,357명을 기록, 구장 개장 이후 역대 최다 관중을 기록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전반 38분에는 엄지성이 왼쪽 하프라인 부근부터 질풍 같은 드리블로 골지역 정면까지 파고 들어가 오른발 슈팅으로 서울 골망을 흔들었다. 하지만 비디오 판독 결과 골이 취소됐다.

후반에는 퇴장 악재를 맞았다. 엄지성이 후반 9분과 10분 연이어 옐로카드를 받아 경고누적으로 퇴장됐다. 10명이 싸운 광주는 이후 2골을 내리 허용했다. 후반 13분 오스마르에 헤더를, 후반

45분 박동진에 다시 헤더를 허용하면서 0-2로 무릎을 꿇었다. 한편, 전남 드래곤즈는 이날 하나원큐 K리그2 2023 경남FC와 홈경기에서 0-5로 졌다. /조혜원 기자

페퍼저축은행 플세트 접전 석패

현대건설에 2-3으로 패배

아헨 김 감독 경기장 찾아

페퍼저축은행이 현대건설을 상대로 플세트까지 가는 접전 끝에 패했다. 올 시즌 목표인 5승을 눈앞에서 놓친데다 아헨 김 신임 감독이 지켜보기에 아쉬움이 컸다.

페퍼저축은행은 5일 수원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2-2023 V리그 현대건설과의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2-3(18-25 25-22 25-17 15-25 12-15)으로 졌다.

이날 페퍼저축은행은 시즌 29패(4승·승점 12)을 기록한 반면 현대건설은 시즌 24승(9패·승점 69)을 기록하며 한 경기 덜 치른 선두 흥국생명(73점)을 추격했다.

1세트를 18-25로 내준 페퍼저축은행은 2세트에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니아리드의 연속 득점 속에 11-11로 팽팽히 맞선 2세트 중반 내리 3실점을 했으나 최가은의 연속 득점과 서재원, 박경현의 활약속에 역전에 성공했다.

시소게임이 이어진 18-18 상황에서는 박경현과 이한비, 니아리드의 득점으로 연속 5득점을 올렸고 막판 뒷심을 발휘하면서 25-22로 2세트를 따냈다.

기세를 탄 페퍼저축은행은 3세트도 25-17로 여유있게 따냈다.

하지만 강팀 현대건설을 상대로 뒷심이 부족했다. 4세트에 범실이 쏟아져 15-25로 졌고 마지막 5세트도 공방 끝에 3점차로 고개를 숙였다.



아헨 김 페퍼저축은행 신임 감독(오른쪽)이 장대투 구단주와 함께 페퍼저축은행과 현대건설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KOVO 제공

한편, 2023-2024시즌 페퍼저축은행 사령탑을 맡은 아헨 김 신임 감독은 이날 입국

하자마자 경기장으로 직행, 페퍼저축은행의 경기를 지켜봤다. /조혜원 기자

광주도시공사 무패행진 끝

삼척시청에 18-23 패배

'선두' 광주도시공사가 이번 시즌 첫 패배를 기록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3일 경북 안동체육관에서 열린 2022-2023 SK핸드볼 코리아 리그 여자부 2라운드 삼척시청과 경기에서 18-23(10-13 8-10)으로 졌다.

11승2무로 13경기 무패행진을 달리던 광주도시공사는 개막 57일만에 패배를 기록했다.

이날 광주도시공사는 강경민 6골, 김지현 4골, 송혜수 2골로 분전했으나 삼척시청을 넘어설지 못했다.

반면 삼척시청은 연수진이 6골, 김은아가 3골을 넣으며 활약했다. 방어율 48.6%를 기록한 골키퍼 박미라가 경기 MVP로 선정됐다.

광주도시공사는 시즌 개막 후 단 한 경기도 패하지 않았으나 이날 패배로 승점 24에 머물렀다. /조혜원 기자



고진영이 5일 싱가포르의 센토사 골프클럽 탄중 코스에서 열린 LPGA투어 HSBC 월드챔피언십에서 우승했다. /AFP=연합뉴스

고진영, HSBC 월드챔피언십 정상

고진영(28)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HSBC 월드챔피언십(총상금 180만 달러)에서 2년 연속 우승했다.

고진영은 5일 싱가포르의 센토사 골프클럽 탄중 코스(파72·6,749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1개로 3언더파 69타를 쳤다.

최종 합계 17언더파 271타의 성적을 낸

고진영은 지난해 이 대회 이후 1년 만에 LPGA 투어 대회 정상에 올랐다.

우승 상금은 27만 달러(약 3억5,000만원)다.

한국 선수가 LPGA 투어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지난해 6월 메이저 대회 KPMG 여자 PGA 챔피언십 전인지(29) 이후 19번째 대회만이다. /연합뉴스



신지애가 5일 일본 오키나와 류큐 골프클럽에서 열린 J-LPGA 투어 다이이치 오키드 레이디스 토너먼트에서 우승했다. /JLPGA 인스타그램

신지애, 다이킨 오키드 레이디스 우승

신지애(35)가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2023시즌 개막전 정상에 올랐다.

신지애는 5일 일본 오키나와 류큐 골프클럽(파72·6,560야드)에서 열린 J-LPGA 투어 다이이치 오키드 레이디스 토너먼트(총상금 1억2,000만엔)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3개와 보기 2개를 기록해 1언더파 71타를 쳤다.

최종합계 10언더파 278타를 기록한 신지애는 3타 차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 상금은 2,160만엔(약 2억원)이다.

신지애가 J-LPGA 투어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2021년 7월 다이토겐다구 레이디스 이후 1년 8개월 만이다.

신지애는 J-LPGA 투어에서 통산 29승째를 거뒀다. /연합뉴스

화순군청 배드민턴 실업리그

내달 2일부터 플레이오프

국내 배드민턴 실업리그인 '2023 한국실업 열정 배드민턴리그'의 6강 플레이오프(PO) 진출팀이 확정됐다.

5일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에 따르면 전날 경기도 포천종합체육관에서 조별 리그가 마무리됐다.

여자부 6강 진출팀은 삼성생명(A조 1위)과 KGC인삼공사(B조 1위), MG새마을금고(A조 2위), 화순군청(B조 2위), 포천시청(A조 3위), 영동군청(B조 3위)으로 결정됐다. 남자부에서는 요넥스(A조 1위)와 국군체육부대(B조 1위), MG새마을금고(A조 2위), 삼성생명(B조 2위), 당진시청(A조 3위), 밀양시청(B조 3위)이 6강에 올랐다.

6강전 경기는 4월 2일부터 9일까지 남녀 각각 A조 2위 팀과 B조 3위 팀, B조 2위 팀과 A조 3위 팀의 대진으로 치러진다. 각 조 1위 팀은 4강전에 직행한다. /연합뉴스